

설화

차례

1. 비바리왓 이야기 1
2. 비바리왓 이야기 2
3. 왕개동산 이야기

1. 비바리왓 이야기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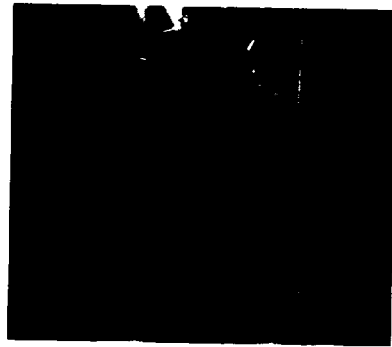
옛날 그 사수가 쓰는 총장있잖아이. 지금 같아서는 총맹 하는 거. 총이 길어서 옛날 같으면 장총이렌 해신디, 요즘말로는 에무원(M1)이라고도 하고. 그 비바리왓이렌 해난디 자왓이 셔났어. 담 옆에 그 자왓이란거 꽃자왓이렌 하지 않으나.

사람이 거기에 밭일 갔다가 어땡행 거 그 고사리 하나라도 나쁜 그거 꺾으젠 땡겼지. 사수도 거기에 사냥하러 땡겼지. 경허당 사수가 뭐가 움직이난, 꿩 맞추는 사람은 그거 아맹해도 꿩인 줄 알고 쏘아분 거라. 그런데 그게 비바리인 거라. 비바리를 쏘아분 거주. 게난 그 밭에 그 여자 죽어부난 그때부터 비바리왓이렌 햄서.

<제보자: 김여호 (74세 · 남)>

2. 비바리왓 이야기 2

비바리왓이 옛날 포수들 산에 사냥꾼들이 사냥을 땡기고, 거기 꽃이 있는데, 보리 익을 철에는 삼동 알잖아이? 삼동을 사람들이 타래 다녀서, 삼동을 타래 다니는데 타가니깐 나무가 움직일 거 아니냐. 근데 먼 디서 있던 포수는 소위 개눈에는 뚱만 보인다고 하잖아이? 삼동이 움직움직 해 나니깐 '옳지 여기에는 노루 하나 숨어있다.' 영 생각하고 쏘았던 말이야. 쏘고 보니깐 그 아주 청청한 비바리여. 이젠 어떡해 이제나 저제나 이 녀도 살아야 되고 배상은 해야 되거든. 근데 죽은 사람은 배상할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그 밭으로 준 거야. 나 중에서 익으니깐 택은 안 맞을지라도 아무리 처녀가 놀명하고 나빠도 아무리 밭이 크고 좋지만은 밭하나 하고 처녀하고 바꿀 수는 없잖아. 경해도 그 처녀 임자도 부모네도 이 놈 놀러 봐야 우리딸 살아날 게 아니고 돈 더 받을 수 없다해서 이 밭을 받았 비바리왓이 되었지.



<제보자: 박성희 (74세·남)>

3. 왕개동산 이야기

옛날 그 소하고 뭍 기르는 사람은 많이 길르고,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그런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일해서. 어느 부잣집에 왕석이렌 종된 사람이 힘이 좋아서 밥을 먹을 때도 하영 먹었쥬게. 한번 소 한 마리 잡으면 돈 딱 다 들러먹어 붙어. 세 살 난 송아지도 혼자 들러잡앙 먹어붙어. 게난 그 사람을 모두가 센사람이다 해주게이? 게난 그 사람을 이길 사람도 없고, 그 사람이 부잣집에 종으로 살아브난 젊은 사람들도 어디 도둑질 하

젠 쉼 하나 몰아가려고 해도 힘들었주. 그 사람을 해코지해서 훔쳐갈 거
아냐게. 경허당 여러 명이 왕석이한테 밥먹이고 술먹이고 행 소를 훔쳐가
분 거라. 잠에서 깬 왕석이가 열이 올라서 그 사람들을 쫓아갔주. 경허당
어느 동산에 이르러신디 거기서 도둑놈들 다 들렁 죽여분 모양이라. 그때
부터 거기를 왕개동산 왕개동산이렌 해서.

<제보자: 김여호 (74세·남)>

■ 조사자 : 현민철(04), 한성자(07), 김수아(07), 박지훈(08), 장재석(08),
고정훈(08)